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문화재단 협력

SHANGHAI

국외연수(중국)
결과보고집

목차

I.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소개 4

II. 중국의 문화와 예술 6

1. 중국의 문화예술

2. 협력기관 소개

- 주한중국문화원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III.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 협력 국외연수 12

1. 국외연수 개요

2. 국외연수 세부 내용

IV. 2025년 국외연수 참가 후기 32

본 국외연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인
11개 광역문화재단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I

한국지역문화 지원협의회 소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에 의거하여 발족한 협의기구로 회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이름으로 발족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등 지역협력형 사업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명칭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업무협의·조정 회의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회원기관 워크숍 및 포럼 추진
- 지역문화예술 관련 조사연구 사업 통합 관리
- 지역문화 행정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칙》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광역 시·도 및 문화재단 간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 시·도 및 문화재단 간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역 간 문화예술지원 정보제공 및 공유
4. 기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회원기관 (18개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울산문화관광재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부산문화재단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II

1. 중국의 문화예술
2. 협력기관 소개
   - 주한중국문화원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중국의 문화와 예술

주한중국문화원 소개

中国文化中心 | 首尔
CHINA CULTURAL CENTER | SEOUL

주한중국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협력 기관으로서 이번 2025년 중국 상해 국외연수 운영 전반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가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와의 미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며, 사전 워크숍을 통해 상해의 문화예술 동향과 한·중 교류 현황을 설명해 주어 연수 참여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국외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주한중국문화원 심효강 원장님과 무리리 서기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중국문화를 알리는 곳, 한중교류의 문화공간 주한중국문화원

2004년 12월 28일 설립된 주한중국문화원은 중국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설립한 해외중국문화원입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에 위치한 주한중국문화원은 다목적홀, 전시실, 문화교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 중국문화 강좌, 태극권, 중국 전통악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중국문화원

또한, 주한중국문화원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중국을 읽다' 강연, '달빛 아래 하나되어(天涯共此时)' 전통문화체험, '맛으로 만나는 중국' 미식 행사, '니하오! 차이나' 중국 문화·관광 홍보행사, '전시실에서 만나는 중국', 중국영화제 등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맞추어 이를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뜻 맞는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学而时习之，不亦说乎。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
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

– 공자

주한중국문화원에서는 언제나 전 세계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며 문화가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소개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다리,
주한중국문화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 홍보 기관으로 2007년 한중 양국 간 상호이해와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문화 중심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역사적으로 한국과 인연이 깊은 도시로 문화원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전시, 공연, 영화제, 문화강좌,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국 시민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하이 지역의 문화기관, 예술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와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K-컬처 재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중 간 문화예술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정보	• 설립일 : 2007년 7월 12일 • 시설 : 도서관, 한식 및 한국어 강의실, 다목적홀, 전시장, 문화체험실 • 평균 방문자 수 : 연간 50,000명
주요업무	• 문화행사(전시, 공연, 체험) 운영 • 문화강좌(한국어, 한식, 국악) 운영 • 대관 및 물품대여(한복, 가야금 등) 서비스 제공 • 기타 한·중 문화협력 관련 다양한 업무 - 한·중 문화기관 간 협력, 중국 언론 대상 한국 알리기 - 각종 국제행사 협력지원 등 기타 업무 수행
주요 프로그램	구분 / 내용
	한중문화 공동 프로젝트 : • 한중 문화교류전, 한중 공동합작 공연, 한중 무형문화 교류
	다양한 공연 : • 연극, 뮤지컬, 음악회, 영화제
	다양한 전시 : • 전통 공예품, 현대미술, 전통음악, 역사, 한글 등
	도서 제공 : • 소설, 에세이, 시, 만화 등 월간지, 한국어 원서 및 중국어 번역서
	체험 : • K-뷰티, 한국민화, 한글 캘리그래피, 한복, 전통 놀이, 수공예
	한국문화 강의 :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한식, 국악, K-POP 등
2025년 주요 행사	• (3.14.~6.12.)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 : 한국인의 옛 음악 이야기 / 국립국악원 협력 • (6.27.~9.13.) 키치 앤 팝 : 코리안 팝아트 나우 / 서울시립미술관 협력 • (5.23.~6.14.) K-뮤지컬 축제 : 총 5편 한국 뮤지컬(알사탕, 데미안 등) 공연 및 전시 • (7월~12월) SAC on SCREEN 정기(한국 우수 공연 콘텐츠) 상영회 / 예술의전당 협력 • (8.16.)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연극 <빵야> 상영회









중국의 문화예술

중국 문화는 중화민족이 오랜 역사 발전 과정에서 형성한 물질적, 정신적 성과의 결정체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핵심으로 하며 철학, 문학 및 예술, 민속 명절, 과학 기술 및 공예 등 다방면을 아우릅니다. 중국 문화는 방대하고 심오하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체계로, 다음과 같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상과 문화

유가 사상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핵심으로 하며 도덕적 수양, 사회 질서, 충효 정신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 《논어》, 《맹자》 등이 있습니다.

도가 사상 : '도법자연(道法自然,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무위이치(無爲而治,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능히 다스린다)'를 주장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합니다. 대표작으로 《도덕경》, 《장자》가 있습니다.

기타 학파 : 묵가의 '겸애비공(兼愛非攻,차별 없는 사랑과 침략 전쟁 반대)', 법가의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 병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등이 어우러져 다원적인 사상 체계를 구성합니다.

2. 문학 및 예술

전통 문학 : 《시경》, 《초사》, 당시(唐詩), 송사(宋詞), 원곡(元曲), 명청 소설(《홍루몽》, 《서유기》 등)을 포함합니다.

서예와 회화 : 서예는 해서, 행서, 초서, 예서, 전서 등의 서체가 특징이며, 회화는 산수화나 화조화처럼 의경(意境)과 필묵의 운치를 중시합니다.

희곡과 음악 : 경극, 월극, 황매희 등의 희곡 형식과 고금, 얼후, 비파 등 전통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3. 전통 의학

중의학은 음양오행 이론을 기초로 하여 환자의 병세를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어 진찰하는 4진(四診)진찰법으로 병세를 진단하고, 한약, 침술, 추나요법 등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합니다. 대표적인 고전서로 《황제내경》, 《상한잡병론》 등이 있습니다.

4. 민속 문화

전통 명절 :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 명절마다 독특한 풍습과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 공예 : 전지(종이 오리기), 자수, 도자기, 목조 등 정교한 수공예 기술과 심미적 정취를 보여줍니다.

음식 문화 : 다도(茶藝)와 8대 요리(사천, 산동, 광동 요리 등)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며 색, 향, 맛, 모양의 조화 및 중의학 양생 관념의 융합을 중시합니다.

5. 건축과 의복

건축 : 궁전, 정원, 사찰 등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대칭, 조화, 자연과의 융합을 중시합니다. (예: 자금성, 소주 원림)

의복 : 한푸, 탕좡(唐装), 치파오 등 전통 의복은 시대별 심미안과 문화적 특색을 드러냅니다.

6. 철학과 과학

철학 사상 : '천인합일(天人合一)', '음양평형' 등의 관념은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대 과학기술 : 4대 발명(제지술, 인쇄술, 화약, 나침반)은 세계 문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천문, 역법, 농학 등에서도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7. 종교와 윤리

종교 문화 :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가 중국에서 장기간 발전하며 독특한 종교 예술과 철학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윤리 도덕 : 효도, 충의, 성신(誠信)등의 가치관을 강조하며 가훈, 집안 규율 등의 형태로 가족 문화와 도덕 규범을 계승합니다.

중국 문화는 중화민족 지혜의 결정체로, 사상을 비롯한 생활에 이르는 모든 방면을 망라합니다. 이는 깊은 역사적 저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생명력과 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III

1. 국외연수 개요
2. 국외연수 세부 내용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 협력 국외연수

국외연수 개요

국외연수 사업개요

○ 추진 목적 : 해외사례 리서치를 통해 지역 공공 예술지원(정책) 모델 구상 및 교류·협력 방안 모색 등 문화예술 전문역량 강화

○ 참여 대상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 추천을 받은 예술창작 지원사업 실무자

○ 추진 시기 : 매년 하반기

○ 연수 지역 : 예술위 후보 지역 및 재단 희망 지역 선별 검토

○ 참여 규모 : 총 20명 내외(예술위 2명, 회원기관 실무자 18명 내외)

○ 추진 절차 : 연수 희망 국가 수요 조사 및 확정 → 현지 기관 섭외 및 프로그램 구성 → 일정, 예산 검토·확정 → 사전 워크숍 → 국외연수 시행 → 결과보고

2025년 국외연수 추진개요

○ 연수 목적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개 광역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 현지 문화예술 우수사례 모니터링, 관계자 미팅을 통한 문화예술 기관·시설 기능 및 운영 사례 조사, 한·중 교류 협력 방안 모색 등 실무자 문화예술 전문역량 강화
  -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위원회,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 미팅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당대미술관, 뉴번드31 공연예술센터,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등

○ 연수 국가 : 중국 상해

○ 연수 기간 : 2025. 10. 21.(화) ~ 10. 24.(금), 3박 4일

○ 연수 참가자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회원기관 소속 총 15인

연번	지역	기관명(가나다순)	소관팀	성명	직책
1	강원	강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정한지	대리
2	경기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이주현	대리
3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지원팀	박성희	대리
4	광주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박준우	대리
5	대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권혜주	과장
6	부산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1팀	구선미	과장
7	세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공연사업실	김우중	주임

8	인천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이동영	주임
9	전남	전라남도문화재단	문예창작팀	김선아	대리
1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	신연우	책임
11			창작지원팀	김수빈	책임
12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박지선	대리
13			예술지원팀	홍지연	주임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팀	황진수	전담심의관
15			지원총괄팀	정호은	대리

* (광역문화재단) 기관별 1~2명 내 참여 희망자 선정
* 연수 미참여 :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충남, 충북

2025년 국외연수 사전 워크숍

○ 추진 목적 : 국외연수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자 대상 중국 문화교육 및 사전 네트워킹

○ 추진 일시 : 2025. 10. 15.(수) 14:30~16:30

○ 장소 : 서울역 4층 KTX2 회의실

○ 참석자 : 총 17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김지영 지원총괄팀장(한지협 사무국장), 황진수 전담심의관, 정호은 대리(한지협 담당)
참여기관	광역문화재단 연수 참여자 10인
협력기관	주한중국문화원 심효강 원장, 무리리 2등 서기관
연수안내	컬쳐로드(운영업체) 연수 운영 담당자

○ 추진 내용

구분	내용	진행(안내)
사전교육	• 한-중 간 문화교류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성 • 중국 상해의 현재 동향과 문화 등	심효강 주한중국문화원 원장
연수안내	• 연수 상세일정 공유, 프로그램 및 방문지 설명 • 사전 준비사항 등 세부 안내 및 질의응답	컬쳐로드 연수 운영업체
네트워킹	• 참여자별 재단 사업과 연수 프로그램(방문지) 간 벤치마킹 등 활용 계획 공유	



2025년 국외연수 사전 워크숍

2025년 국외연수 일정

구분	일자	주요 일정
1일차	10.21.(화)	• 출국(인천→상하이)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미팅 •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사무국 방문 및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 미팅 *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 상해문화관광국 축제 담당자 공동 미팅 진행 • 와이탄 거리
2일차	10.22.(수)	• 상하이 임시 정부청사 • 상하이당대미술관 전시기획자 미팅 및 전시 관람(도슨트 투어) • M50 예술지구(단지) •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공연장 투어 및 관계자 미팅 • 예원 옛거리
3일차	10.23.(목)	• 상하이박물관(동관) •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투어 및 관계자 미팅 • 상하이 발레단 <LILY> 공연 관람
4일차	10.24.(금)	• 상하이 출발 • 인천 도착 및 해산

국외연수 세부 내용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미팅

주상하이한국문화원
驻上海韩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 일시 및 장소 : 10.21.(화) 13:30~15:00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아리랑홀

○ 관계자 : 초 휘 교류홍보팀장, 최유림 문화교류팀 과장

○ 주요 내용

- (시설 탐방) 도서문화복합공간, 한국문화체험관, 한식요리실(대장금실), 한국어교실 등 국내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 (전시 관람) 한국콘텐츠진흥원 협업 <K-Comics World> 전시
- (기관 소개) 주한중국문화원 업무 및 주요 행사

기본정보	• 설립일 : 2007년 7월 12일 • 시설 : 도서관, 강의실, 전시장, 문화체험실 등 • 평균 방문자 수 : 연간 50,000명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다리,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주요업무	•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 • 한·중 문화협력(국제행사, 문화기관 간 협업 등) 업무	
2025년 주요 행사	• (5.23.~6.14.) K-뮤지컬 축제 : 총 5편 한국 뮤지컬(알사탕, 데미안 등) 공연 및 전시 • (8.16.)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연극 <빵야> 상영회	

- 관계자 업무 미팅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 중국 상해 관객은 해외, 현대적 콘텐츠에 개방적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과거의 드라마·영화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사업 운영 방식	• 공연, 체험을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이 관람객 호응이 높아 시리즈 행사로 확대 • 콘텐츠 자체 선정뿐 아니라 협력 기관을 통한 공연 제공 비중 증가 • 대부분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는 중국 방문객에게 우호적이며 외부 행사의 경우 중국 정부 승인 필요
기관 간 협력 제안	• (광역문화재단) 지역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원과의 교류 희망. 문화원 내 '지역문화관' 기획전과 무형문화재 초청 교류전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원에서 상영한 <빵야>와 같이 기관에서 지원하는 우수 공연 작품 협업 제안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협업을 위한 구체적 콘텐츠 제안 접수 시, 내부 절차에 따른 검토 진행 및 연간 운영 계획 반영 가능성 고려



시설 탐방



전시 관람



기관 소개 및 관계자 미팅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및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 미팅

○ 일시 및 장소 : 10.21.(화) 16:00~18:00 / 상하이국제예술제 사무국

○ 관계자 : (국제예술제 위원회) 황 부총재 사업 총괄, (상해문화관광국) 장 닝닝 수석 책임자

* 상해문화관광국(축제 담당)과 국제예술제 위원회 협력 관계로 공동 미팅 진행

○ 주요 내용

-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CSIAF) 소개

<개요>

- 중국 문화관광부 주최, 상하이시 인민정부 주관의 국가급 국제예술 축제
- 1999년 "예술의 축제, 모두의 향연" 슬로건으로 출범
- 축제 기간 : 2025.10.17.~11.27., 약 40일간
- 70여 개국 예술단체, 5만여 명 예술가 참여
- 전 세계 누적 관객 수 7천만 명 이상



CSIAF24 포스터

<역할 및 의의>

- 세계적 공연예술 자원을 유치하고 현대 예술의 흐름 선도
- 중국과 세계 각국 간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촉진
- 상하이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할
-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국제행사

<2025년 축제 주요 특징>

- 공연 수 확대 : 역대 최대 규모 1,200편 이상 공연
- 기술과 예술 융합 : XR(확장현실), 홀로그램, 인공지능(AI) 음악 작곡 프로젝트 등
- 국제 참여 확대 : 70여 개국 예술단체 참여,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첫 대규모 초청
- 청년·신진 예술가 지원 : '차세대 무대(Next Stage)' 프로그램을 통한 35세 이하 예술가 작품 집중 조명
- 도시 공간 활용 : 상하이 시내 주요 광장, 공원, 리버사이드 지역 중심 무료 야외 공연 진행

- 상해문화관광국 소개

기관 소개	• 상하이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유산 보존, 관광자원 개발, 지역 축제 기획 등 • 상하이를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내외 예술단체 협력, 국제 예술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 도모
예술제 관련 역할과 기능	① 정책 및 행정적 지원 : 예술제 운영 지도, 감독, 행정, 재정, 인허가 등 절차 총괄 ② 조직 및 운영 관리 : 조직위원회 참여 및 기획, 일정, 장소, 협력 기관 조율 ③ 문화·관광 융합 추진 : 문화·관광 산업 통합 발전 촉진, 해외 관광객 유치, 도시 브랜드 제고 등 문화관광 홍보 플랫폼 역할 강화 ④ 국제교류 확대 : 해외 공연단체, 예술기관 교류 협정 및 문화외교 추진, 조직위원회와 작품 초청·공동제작 지원 ⑤ 공공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확대 : 공공예술행사, 거리공연,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지원 ⑥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관리 : 데이터 수집, 산업분석, 후속 사업 연계 등 예술제 통한 지역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 관계자 업무 미팅

예술제 운영	• (축제 구성) 무대 공연, 예술교육, 전문가 포럼, 청년 프로그램 등 총 8개 파트로 구성. 전체 공연 중 약 3분의 2가 해외 초청 작품으로 국제적 성격이 매우 강함 • (슬로건) 대규모 축제가 시민과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반영 • (재원 조성 및 예산 구조) 공익적 성격의 행사로 별도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원은 자체 예산 3분의 1, 정부 지원 및 민간 후원 3분의 2로 구성됨 • (일반 시민 문화 혜택) 1년 내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제(합창단, 무용단 등) 운영 →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연 선정 기준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품질과 예술성 갖춘 작품 우선 선정. 참여 예술가 역시 국제적 최고 수준의 전문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 • 야외 공연은 상징성 및 대중적 메시지가 강한 대표작 우선 배치 • 현재는 유럽권 예술단체 작품 선호하나 한국 작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청년 예술인 지원 및 심의 방식	• (지원절차) 신청-심사-발표 단계별 절차로 운영 • (심의과정) 신청 접수 → (1차 심의) 작품 완성도 50~70% 수준을 기준으로 선발 → (2차 심의) 워크숍 및 발표 심사 → 최종 선정(약 100명 청년 아티스트 발굴) • 매년 약 200명 내외 신청 접수, 2차 심의 시 바이어(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섭외하여 작품 표현 방식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과 발표 과정 거침
한·중 문화교류 및 향후 협력 방향	• 한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뮤지컬 분야를 가장 많이 교류하고 있음 • 이번 연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주한중국문화원-상해문화관광국' 간 연계를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국제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희망함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위원회 및 상해문화관광국

○ 상하이발레단 <LILY> 공연 관람

- 일시 및 장소 : 10.23.(목) 19:30~21:00 / 상하이 국제무용센터 대극장
- 공연명 : Ballet LILY by Shanghai Ballet

  *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대표 창작 공연
- 공연단체 : 상하이발레단
- 공연 및 단체 소개

• LILY (백합화) 공연

- 1958년 루즈쥐안(Ru Zhijuan)의 동명 단편소설 <백합화> 원작을 각색한 창작 발레
- 중국의 저명한 WANG Anti 작가의 대본과 WANG Gd 안무가로 구성된 중국 전역 최고 수준의 창작진
- 전쟁을 배경으로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얽힘과 정체성, 성격, 인생 경험을 가진 세 여성의 이야기. 이불을 빌리는 사소한 행위를 통해 삶을 교차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인간의 아름다움과 삶의 활력을 경험할 수 있음

• 상하이발레단

- 1979년 설립되었으며, 대표작 <백모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0여 회 공연을 진행
- 40여 년에 걸쳐 <백모녀>로 시작해 현재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지젤>등 세계적인 클래식 발레를 공연하였음
- 상하이발레단의 젊은 무용수들은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59개 메달 획득, 올림픽 금상 등 수상함
- 국내외 예술단체, 예술가와 폭넓은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북한, 싱가포르, 한국 등 100여 개의 해외 공연을 진행하여 중국 발레만의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선보임. "중국 상하이에서 온 발레가 중국의 도자기처럼 정교하다"라는 평가를 받음





상하이발레단 <LILY>

상하이 대표 공연장 투어 및 관계자 미팅

① 뉴 번드 31 공연예술센터(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 일시 및 장소 : 10.22.(수) 16:00~18:00 / 뉴 번드 31 공연예술센터 회의실

○ 관계자 : Chris Yu, Sitong Liu, Mavis Hu, Mandy Chen(총 4인)

○ 주요 내용

- 공연장 및 복합시설 투어, 시설 소개

- 2023년 10월에 오픈한 공연장,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예술단지로 최첨단 공연 예술센터
- 규모 : 약 2,500석 대형 공연장, 블랙박스 소극장, VIP룸, 리허설실, 전시갤러리, 상업 공간 등 다양한 공연장 공간과 서비스 제공
- 특징 : ①교통 접근성 우수(지하철역 인접), ②예술·비즈니스·여가가 결합된 복합문화거점, ③상하이의 신규 문화랜드마크로 조성





- 관계자 업무 미팅

공연장 운영	• (운영 주체) 민간 중심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정부 협력사업에도 유연하게 참여 • (운영 형태) 대관, 라이선스 공연, 공동제작, 협력 기획 등 병행 • (공연 유형) 뮤지컬, 콘서트, 테마 음악회, 오페라 중심. 그 외 패션쇼, 브랜드 행사, 영화 시사회 등 복합 이벤트 유치 • (해외 공연 비율) 현재 유럽, 미국 작품 중심이나 향후 아시아·한국 콘텐츠 협력 확대 계획 • 상하이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국제교류, 예술교육, 문화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평가됨
재정 및 정부 협력	• (재정 운영) 민간 자율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정부 지원은 특정 문화사업,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한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짐 • (정부 협력) 상해문화관광국 등 관련 기관에서 문화·관광 융합 사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협업 의지를 보이고 있음

교육 및 인력 양성	• 상하이연극대학교(Shanghai Theatre Academy)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무대기술·조명·음향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인턴의 일부는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인력 양성 효과가 큼
한·중 문화교류 협력 제안	• (예술위·문화재단) 한국 예술단체 공연 협업, 한중 문화교류 행사·전시·박람회 등 공동 개최 제안 • (뉴번드31) 정부·구제기구와의 문화교류에 개방적이며 국제 콘텐츠 협력을 확대할 계획 → 향후 공동기획 공연 및 예술·산업 연계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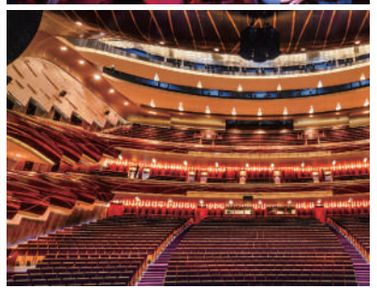












뉴 번드 31 공연예술센터(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② 상해문화광장 공연장(Shanghai Cultural Square Theatre)

○ 일시 및 장소 : 10.23.(목) 14:30~16:30 /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회의실

○ 관계자 : Faye, Alice, Kuma, Kyle(총 4인)

○ 주요 내용

- 공연장 투어 및 시설 소개

• 시설 개요
- 상하이 도심 주요 복합 공연예술 공간으로 2011년 개관한 2,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 뮤지컬·오페라·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해외 뮤지컬 유치 비율이 높음
- 우수한 음향·조명 시설과 관객 친화적 설계를 갖춘 국제적 공연장

• 주요 운영 현황
- 연간 공연 수 : 약 200회
- 장르 비중 : 뮤지컬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극·무용·콘서트 등도 운영
- 관객 및 회원 현황 : 누적 관객 300만 명 이상, 멤버십 회원 65만 명 이상
-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서 제작·유치·트렌드 반영 공연을 모두 수행

• 대표 제작 공연 : 개관 기념 공연 Ultimate Broadway를 미국·영국 배우들과 협력 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뮤지컬 갈라·콘서트 브랜드를 확립

• 뮤지컬 페스티벌 운영
- 2019년 중국 최초 뮤지컬 페스티벌(SHOW LIFE Shanghai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을 개최
- 주요 프로그램 : 뮤지컬 산업 포럼, 육성 프로젝트, 싱잉 콘테스트 및 합창단 운영 등

- 관계자 업무 미팅

공연장 운영	• 대관 공연 60%, 자체 기획 공연 40% 비율로 운영 • 대관 공연도 안내·안전 등 공연장 소속 인력이 직접 배치하여 서비스 품질과 운영 일관성을 유지 • 전체 직원은 약 120명으로, 안내·시설·기술 인력을 포함한 다분야 인력으로 구성
재정 및 정부 협력	• 여성 관객 비중이 매우 높아 한국과 유사한 관람 구조를 보임 • 주요 관객층인 젊은 여성들은 감성적 몰입과 현장 분위기 중심의 공연 경험을 선호 • 스토리 이해가 쉬운 라이선스 뮤지컬을 특히 선호하며, 관람을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인식
회원제 및 티켓 시스템 운영	• 약 65만 명의 등록 회원이 공연 홍보와 주요 관람층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티켓 판매의 80~90%가 회원을 통해 이루어짐 • 공연은 3개월 전 티켓 오픈, 회원 전용 사전 예매·홍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간 소비액 기반 등급제(후원제)를 통해 상위 회원에게 우선 구매권을 제공 • 티켓 가격은 80~800위안으로 폭넓게 구성되며, 학생·청년층 대상 저가석 확대 등 다양한 관객층의 접근성을 강화함 • 정부 보조는 없으며, 무료 초대권·대관 할인 등은 자체 정책으로 운영. 일부 VIP 좌석은 내부 보유석으로 별도 관리
안전관리	• 모든 공연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과 무대장비 안전 매뉴얼을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 • 보험 및 안전교육은 공연별 협약에 따라 진행되며, 전담 부서가 이를 일괄 관리
작품 선정·심의 및 편성 운영	• 작품 선정은 공연 프로그래머의 조사 후 예술감독·기획팀 심의를 통해 결정 - 심의 기준 : ① 예산 및 원가 구조, ② 예술적 완성도, ③ 공연장 컨셉 부합도, ④ 관객 반응 가능성 등 • 대관 및 공연 선정은 1~1.5년 전 사전 접수 후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 • 공연 시즌별 테마 편성 : 봄–창작·오리지널, 여름–패션·트렌드, 가을–해외 페스티벌, 겨울–대형 뮤지컬 중심 • 정부 지원 대관 할인 제도는 2018년 폐지, 현재는 일괄 요금제 유지 • 협력 극장 및 프로듀서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인 작품 교류·정보 공유 체계를 운영
관객 디지털 서비스	• 모든 좌석 팔걸이에 QR코드를 부착해 공연 정보 확인, 의견 제출, 불편사항 신고 등 실시간 서비스 요청이 가능 • 오프라인 리플릿을 최소화하고 모바일·디지털 안내 중심으로 홍보 및 정보를 제공 • 일부 공연은 QR 기반 관객 참여형 콘텐츠로 운영하여 관람 경험을 확장
교육 및 인력 양성	• 비영리 형태로 연 4~5회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 • 전공자, 인턴, 아마추어 등 다양한 참여자에게 개방된 프로그램 • 실무 중심 훈련과 예술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상하이 공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함

시민 프로그램	•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뮤지컬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약 700명이 참여하고, 중국 전역·홍콩·해외 거주자도 참가 가능 •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수상자에게는 배우 데뷔 기회가 제공됨 • 목적은 뮤지컬 대중화, 문화산업 저변 확대,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둠
한·중 문화교류 협력 제안	• 한국 뮤지컬은 라이선스 계약 후 현지화 제작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서양 뮤지컬(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은 패키지형(수정 불가)으로만 판매 • 한국·유럽 작품은 현지화 유연성이 높아 상하이 극장에서 선호도가 높음. 일부 한국 작품(예: 어쩌면 해피엔딩)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예술인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 • 예술위 창작산실 지원작 등 한국 창작 뮤지컬에 지속적 관심과 협력 의사를 표명함 • 정치적 요인으로 교류가 일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정상화와 협력 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함 • 양국 모두 창작 뮤지컬의 예술성·스토리성 강화라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



상해문화광장 공연장(Shanghai Cultural Square Theatre)

상해당대미술관(Power Station of Art) 전시

○ 일시 및 장소 : 10.22.(수) 11:00~12:30 / 상해당대미술관

○ 관계자 : CHEN Xian(전시 기획 담당)

○ 주요 내용

- 상해당대미술관 소개

- 명칭 : 상하이 당대미술(예술)관(Power Station of Art, PSA)
- 설립일 : 2012년 10월 1일
- 특징 : 南市发电厂(Nanshi Power Plant)이라는 발전소 건물로,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미래관'으로 사용된 유휴 산업시설을 복합전시장화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
- 주요 전시 : 중국 및 해외 현대미술 작품,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디자인-건축 관련 전시 다수 개최
- 연구·컬렉션·교육 : 전시 외에도 수집, 학술연구, 교육 및 워크숍 등 복합아트센터 역할 수행
- 상하이비엔날레(Shanghai Biennale)의 고정 공간으로 사용됨





상해당대미술관(PSA)

- 중국 현대미술 작가 林天苗(Lin Tianmiao) 개인전 <没什么好玩的!(There's No Fun in It!)> 전시 해설 및 관람

- 전시명 : 没什么好玩的!(There's No Fun in It!) - 린톈마오 개인전
- 전시기간 : 2025년 9월 30일~2026년 1월 4일
- 기획 : Dr. Pi Li, 홍콩 타이쿤 현대미술관 예술총감독
- 중국 당대예술 컬렉션 시리즈로 제9번째 연구형 전시
- 린톈마오의 최대 규모 연구형 개인전, 30여 년간의 약 40여 점 대표작
- 기획 의도 : "몸의 감각은 가장 진실하다. 내면의 감정에서 출발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다."



전시 포스터

<상해당대미술관 전시 및 교류 시사점>

- 국제 큐레이터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중국 당대예술 연구의 대표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린톈먀오 사례는 여성 예술가의 미술사적 위상 강화와 예술-기술 융합 창작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 한·중 문화교류 시 기획형 전시 교류 모델, 작가 리서치 기반 전시 기획 방식 등 협력 방향 설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임









상해당대미술관

현지 문화예술, 역사 공간 및 장소 운영 사례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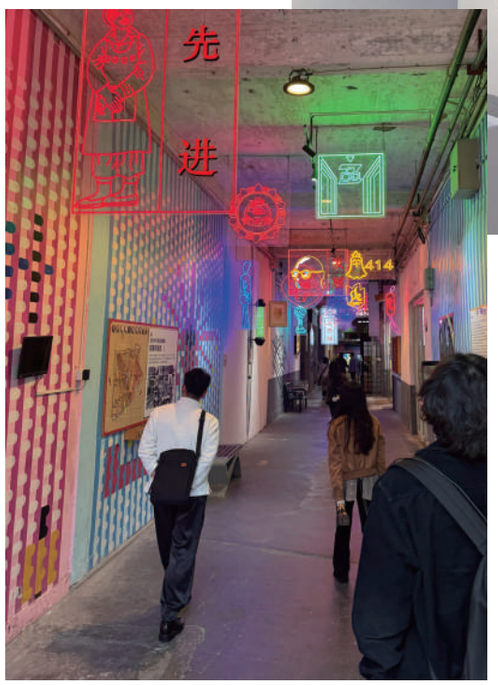
① M50 예술지구

○ 일시 및 장소 : 10.22.(수) 14:00~15:00 / 상해 미덕창로 일대

○ 주요 내용

- 1930년대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복합예술문화단지
- 현재 약 140여 개의 갤러리, 작가 스튜디오, 디자인 스튜디오, 문화기업 등이 입주해 있으며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창작·전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전시, 국제 아트페어, 신진 예술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운영
- 상하이 예술 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M50 예술지구

② 상하이박물관(동관)

○ 일시 및 장소 : 10.23.(목) 09:30~11:30 / 상하이박물관

○ 주요 내용

- 중국 대표 고대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약 102만 점 소장품을 소유
- 청동기, 도자기, 서화, 전통공예 등 12개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국제 교류전이 연중 진행
- 특히 유물 전시의 조명, 배치, 해설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관람객 이해도를 높임
- 최근 디지털 해설과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확대하여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대중 접근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상하이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기관





상하이박물관(동관)

③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일시 및 장소 : 10.22.(수) 09:00~10:00 / 임시정부청사

○ 주요 내용

- 상하이 루쉰공원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사용된 역사적 장소
- 내부에는 당시 임시정부 회의실, 집무실, 거주 공간이 복원되어 있으며 독립운동 관련 사료와 영상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한중 역사교류 및 청소년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며 항일독립운동의 국제적 기반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유산



상하이임시정부청사

④ 와이탄 거리

○ 일시 및 장소 : 10.21.(화) 19:30~20:30 / 와이탄

○ 주요 내용

- 황푸강을 따라 조성된 와이탄거리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상하이 대표 근대 건축 보존지구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조계 시절 건축된 은행, 무역회사, 호텔 등이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양의 외탄(外滩) 건축박물관'으로 불림
- 현대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재정비되어 조명 연출과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예술적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건물의 전기세(야경)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 낮에는 역사 문화 탐방지, 밤에는 관광객을 위한 야경 명소로 기능하며 상하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대표



와이탄 거리

⑤ 예원 옛거리

○ 일시 및 장소 : 10.22.(수) 19:30~20:30 / 예원 옛거리

○ 주요 내용

- 명나라 중기(16세기)에 조성되었으며 전통적인 중국식 정원 건축양식을 보존한 대표 유적지
- 인공산, 연못, 정자, 회랑, 조각 등 조화를 이루어 섬세한 조경미와 공간 구성으로 중국 고전미학의 정수를 보여줌
- 예원 일대는 전통시장, 차 문화 체험, 상점 등 관광·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함
- 상하이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 문화 장소로 방문객들에게 중국 전통미의 정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감



예원 옛거리

IV

2025년 국외연수 참가후기

참가 후기

*기관명 가나다순

성명	기관명
정한지	강원문화재단

공간과 시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얻은 실무적 가치

이번 상하이 국외연수는 중국 내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문화정책·공연장 운영·예술제 기획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상하이당대미술관과 M50 예술지구는 유휴공간을 지역문화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느껴졌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지만, 상하이는 규모·공간 브랜딩·콘텐츠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모델을 보여주는 듯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정책 측면에서 시사점이 컸다.

또한 중국의 문화예술 운영 방식이 '창작자 지원 중심'보다는 '관람객 중심의 예술향유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주요 공연장과 미술관은 관람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공연장 내부 아카이브 전시, VIP룸 및 상업공간 결합 등 복합 운영 모델을 통해 공간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향후 공연장, 전시공간 운영이나 지역 예술행사 기획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SG 관점의 운영 전략도 눈에 띄었다. 조명·전력 사용 최소화, QR 기반 정보 제공 등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향후 재단 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사업 참여자 안내 등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중국의 문화정책이 외교·세계정세·문학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정책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했고, 강원도 차원의 국제교류 기획에서도 단순 문화교류를 넘어 외교적 리스크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번 연수가 공연장·전시 중심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내 창작지원정책이나 예술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창작지원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나 제도 교류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실무자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수는 **공간 운영 전략, 시민향유 중심 정책, ESG 실행 사례 등 재단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해볼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향후 청년예술인지원 사업,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원 옛거리



M50 예술지구

성명
이주현

기관명
경기문화재단

상하이 문화예술 기관 탐방을 통한 교류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이번 국외연수는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해문화관광국 등 상하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을 비롯해 공연장·미술관·재생 예술공간을 폭넓게 방문하며 중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한 관람이나 자료 수집을 넘어, 각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운영 구조와 정책적 배경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 문화예술 환경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기관 간 교류의 가능성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연수의 첫 일정인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은 상하이 현지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한 시간이었다. K-팝뿐 아니라 시각예술, 공연, 웹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갖는 인지도를 체감할 수 있었고, 상하이라는 도시가 한국 문화에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지 트렌드와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상하이 국제예술제 및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 미팅에서는 중국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술제의 운영 방식, 작품 선정 기준, 관객 확보 전략 등에서 중국만의 시스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지역 기반 예술제임에도 '향유자 중심'으로 고품질 공연을 확보하려는 방향성이 인상적이었다. 상하이 국제예술제의 공연 관람 역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상하이 발레단의 <LILY>를 통해 중국에서 선호되는 공연 서사와 공연 관람 문화, 소비층 등을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기존 스토리텔링을 차용하는 방식, 무대·기획·관객관리까지 이어지는 공연장 전체 운영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작품의 예술성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연이 소비되는가'를 실제 관객들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지역 기반 예술제 설계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이 많았다.

관객의 입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투어를 통해 공연장의 내부 운영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와 상해문화광장 방문은 중국의 공연장 시스템을 비교·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는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호텔과 상업시설을 공연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한 동선 구성부터, 공연장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까지 모두 새롭고 흥미로웠다.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원,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가 한데 모여 있는 형태는 관객에게도 편리하지만, 이 공간을 사용할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장점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단순한 '문화예술' 공간을 넘어선 '서비스' 중심의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눈에 띄었다.

반면 상해문화광장은 현재 상해의 뮤지컬 문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다. 단순 운영을 넘어 새로운 라이선스 작품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합작 및 자체 기획·제작을 병행하며, 지역 공연팀과 원정 공연팀 모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모습은 공연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공간 제공을 넘어 '뮤지컬 성장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중국 내 뮤지컬 분야의 확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느낌이었다.

상해당대미술관 방문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에 '당대(Contemporary)'라는 명칭을 붙인 점에서, 현 시대의 예술적 고민을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기관의 의지와 과거 공간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려는 개발 의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린톈마오 개인전 <There's No Fun in It!>에서는 작가의 폭넓은 작업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었고, 여성 작가로서의 삶과 사회적 맥락을 담아낸 작품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단순 관람이었다면 전시 해석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약 1시간 동안 도슨트 해설과 순차 통역을 지원받아 관람에 훨씬 몰입할 수 있었다.

상해당대미술관이 잘 정돈된 갤러리라면, M50 예술지구는 더 활기차고 다채로운 '예술 생태계의 현장'에 가까웠다. M50 예술지구는 단순한 창작 공간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갤러리·스튜디오·상업시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형성하고 있었다. 내부에 배치된 카페와 식음 공간들은 관람 동선을 보완하며 예술 소비와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고 있었다. 한국의 일부 재생문화공간이 장기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재생공간 운영의 지속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지점을 많이 안겨준 곳이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상하이의 주요 관광지와 도시 경관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상하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중 하나인 상하이임시정부청사는 전시 구성과 해설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역사자원 활용의 대표적 사례로 느껴졌다. 또, 최근 개관한 상하이박물관 동관은 새롭게 조성된 공공문화시설이 어떻게 관람객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대규모 유물 전시뿐 아니라 발굴·복원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코너 구성,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 과정 중심의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옥상·테라스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해 관람 피로도를 낮추고, 로비에서 굿즈 팝업을 운영해 관광객 친화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운영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이탄 거리와 예원 옛거리 등에서는 전통 경관과 상업시설, 야간 경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관광전략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현지 기관 관계자들과의 만남뿐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었다. 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창작지원 사업, 예술인 복지사업, 국제교류 사업 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고, 업무 방식과 현장의 어려움도 편하게 나눌 수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실무자 네트워크는 앞으로 지역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번 연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겼다.

이번 국외연수는 중국의 문화예술을 체감하는 경험을 넘어, 공간 운영, 예술정책, 관광전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한·중 간 문화예술 교류의 현실적 여건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관찰한 다양한 사례들은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문화공간 운영, 지역예술생태계 조성 등 여러 업무 영역에서 더 현실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연수 기간 동안 형성된 네트워크 역시 앞으로 실무 협력에서 의미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하이 국제무용센터 대극장(상하이발레단 <LILY> 공연장)

성명
박성희

기관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연결이 만들어내는 확장, 예술기관 간 장기적 협력의 첫걸음

이번 상하이 국외연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문화예술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공연과 전시를 직접 체험하면서, 평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역할과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업무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특히 인상 깊게 느낀 세 가지 지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야가 한층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하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만큼, 문화예술이 도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서 소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하이발레단 공연과 상해당대미술관·상하이박물관을 둘러보며 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M50 예술지구는 예술가와 작은 갤러리, 창작 공간이 서로 뒤섞여 활기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지역 문화의 다층적 구조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을 넘어 도시의 흐름과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확인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와 상해문화광장 같은 복합문화공간에서는 공간 운영 그 자체가 훌륭한 참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은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또한 예술기관이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넘어 교육, 관객 개발,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기관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거나 "이 운영 방식은 지역 특성에 맞게 변형하면 적용할 수 있겠다"는 감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연수 경험이 실질적인 업무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했다는 점입니다. 상하이 국제예술제와 문화관광국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예술기관 간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이나 프로그램 교환을 넘어,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기관이 해외 문화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수에 함께 참여한 국내 여러 광역문화재단 실무자들과 나눈 대화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깊이 공유하기 어려웠던 업무 방식이나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관계가 형성되었고, 향후 협업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목적 중 하나였던 '네트워크 체계 강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해외 기관의 우수사례를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것'을 넘어, 도시의 예술 생태계를 몸으로 느끼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며, 여러 관계자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번 연수에서 얻은 시각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고자 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실무적 접근이 한 단계 확장된 의미 있는 연수였습니다.



상해당대미술관(PSA)

성명

박준우

기관명

광주문화재단

행정 너머의 예술을 보다 : 상하이에서 찾은 지역문화의 미래

2025년 중국 상하이 국외연수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예술이 도시를 움직이고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위원회 및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와의 미팅에서는 예술이 행정의 틀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무대로 확장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고,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시민이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표현하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대표 창작 공연인 상하이 발레단의 <LILY> 공연은 영웅적인 전쟁 서사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감정과 관계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전장을 비추는 조명탄 아래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순수함과 희생, 그리고 지켜지지 못한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공연이었다. 그리고 예술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M50 예술지구에서는 낡은 공장이 창작의 산실로 탈바꿈한 공간을 보며,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도시재생형 예술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았다. 예술과 지역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공연장과 상하이문화광장 공연장에서는 첨단 공연시설과 민간 중심의 운영체계가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킨 공연예술의 생태는 우리 지역 공연장 운영 및 국제교류형 콘텐츠 기획에 실질적인 영감을 주었다.

또한,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을 통해 공공문화기관이 국가 간 문화외교의 창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며, 우리 지역 문화재단도 지역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연결되는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함을 느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예술은 행정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이 만나며 생겨나는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행정이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었다.

광주문화재단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예술 생태계와 도시문화 전략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장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가 무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쓰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팀 정호은 대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 만난 여러 지역의 담당자분들도 빡빡한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성명

권혜주

기관명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국제예술 현장에서 얻은 예술 기획·운영의 확장된 관점

이번 상하이 연수는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를 중심으로 상하이의 예술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며, 국제적인 예술 환경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술 기획과 운영에 대한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경험은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CSIAF) 관계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술제의 전략과 비전, 국제 공연 유치 방식, 그리고 정부와 예술계의 협업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국제예술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닌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문화 예술 교류의 잠재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하이의 예술 거버넌스 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에서는 한국 문화와 콘텐츠의 중국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며,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문화 예술의 해외 진출 전략을 재고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공연장 투어와 미팅에서는 상하이 공연장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의 가변형 무대는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공연 형태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 작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하이문화광장**에서는 대규모 공연뿐 아니라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공공예술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공연장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체감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당대미술관**(Modern Art Museum)**에서 열린** Lin Tianmiao**의** "There's No Fun in It!" 전시는 현대 사회를 유머와 비판의 시선으로 풀어낸 독특한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설치 작품은 관람자에게 사유와 관찰을 통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관람자와 작품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예술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M50 예술지구**를 둘러보면서 창작자 커뮤니티의 활기와 자생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예술적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참가작인 **상하이 발레단의 창작 공연** <LILY>를 관람한 경험은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큰 감동 중 하나였습니다. 무대 디자인, 안무,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현대적 감성과 고전 발레의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한국의 무용 및 공연 분야에서도 실험적이고 융합적인 발레 작품을 기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 과정에서 광역 문화 재단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 지역의 지원제도를 비교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별 문화예술 지원제도를 비교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고,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저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하이는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 전통과 창조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저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경험은 제 개인의 예술적·전문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지역에서 문화 예술 교류와 창작 활동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명
구선미

기관명
부산문화재단

문화 행정가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상하이 예술 생태계

눈앞에 닥친 업무를 겨우 정리해 놓고 처리하지 못한 또다른 업무는 흐린눈으로 애써 외면하며 떠난 일정이었다. 심지어 출발하는 날까지도 '내가 가는게 맞는거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부스스한 몰골로 새벽 공기를 마시면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러가는 길에도 설렘보다는 '그래, 쉬엄쉬엄 구경이나 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야.'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하이에 도착했지만,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다. 여유로운 연수가 될거라는 나의 마음과 달리 국가대표급 체력 테스트와 같은 일정이 쉼 없이 이어졌다.

40대의 몸은 솔직했다. 숙소에 돌아오면 제대로 씻을 새도 없이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다. 하지만 부산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상하이 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 보따리 마냥 풀어놓는 나는 누가 봐도 가장 신나고 재미있게 다녀온 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것보다 아주 많이 배우고 꽤 즐거운 연수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에 도착해 가장 먼저 먼저 방문한 곳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이었다. 낯선 곳에서 만난 한글로 쓰여진 간판, 홍보물과 도서들이 유독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는 것 같았다. 문화원 관계자들과의 따뜻한 응대 속에서 국제교류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부산의 예술가들이 이 곳에서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상상이 잠시 스쳐갔다.

<제24회 상하이 국제 예술제> 관계자 면담

상하이 국제예술제 사무국의 활기가 가득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참가작의 60%가 해외작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상하이가 이미 국제 무대에서의 허브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부산의 훌륭한 작품들도 언젠가는 이 무대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탄거리

와이탄 거리에서 본 마천루의 화려한 조명과, 오래된 유럽풍 건물들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듯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다른 듯 닮은 모습을 한 부산의 마린시티가 떠올랐다. 현대적 풍경과 원도심의 역사적 공간을 잇는 와이탄 거리를 걸으며 부산도 이렇게 연결된다면 도시의 매력도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하이 임시 정부 청사

겉으로 보기엔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묵직한 역사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것이 느껴졌다. 좁은 공간에서 오직 나라의 앞날을 고민했을 사람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졌다. 화려한 상하이 도심 속에서 만난 조용한 이 공간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애국심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

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에서 본 작품들은 꽤나 인상 깊었다. 실, 바늘과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여성의 삶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들이 놀라웠다. 한땀한땀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들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M50 예술지구

골목마다 작은 갤러리와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었고 공간 특유의 투박하지만 힙함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이 곳을 걸으며 자연스레 부산의 또따또가가 떠올랐다. 또따또가 역시 부산의 원도심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이 닮아있었다.
예술가들이 공간의 의미를 더하며 도시의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는 힘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뉴번드31 공연예술센터

대극장과 블랙박스 공연장, 갤러리, 레스토랑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보며 부산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레 부산의 15분 도시가 생각이 났다.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전시, 공연, 휴식, 식사..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번드31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예원 옛거리

예원 옛거리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한 장면 같은 곳이었다. 오래된 목조건물의 지붕선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은 풍경을 보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 온 기분이 들었다. 화려한 빌딩 사이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상하이의 매력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상하이박물관 동관

상하이박물관 동관은 하루종일 머물러도 다 둘러보기 힘들만큼 방대한 전시에 놀랐다. 시대별

흐름에 따라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도자기, 공예품들은 눈 뗄수 없을만큼 섬세하고 화려했다. 설명을 따로 듣지 않아도 시대를 따라 전시된 공간을 따라가니 언어가 달라도 공간 자체가 하나의 해설처럼 느껴졌다.

상하이 문화광장 공연장

상하이 문화광장 공연장은 대극장의 회전무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

상하이 발레단 <백합화> 관람

<백합화>는 이야기 자체는 나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용수들이 추는 군무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발레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추는 춤은 내가 알던 발레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그 낯섦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 무용수들의 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정에서 전해지는 감정 역시 인상적이었다. 약간은 낯설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공연이었다.



상하이발레단 <LILY> 공연

성명 김우중

기관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민·관 협력 구조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연장 진화

2025년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광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3박 4일간의 중국 상하이 연수를 다녀왔다. 상하이는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친숙하게 느껴지는 도시라 연수 역시 무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상하이 최고의 공연시설과 현직자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던 경험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담당자와 주관사의 지원 덕분에, 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중국 공연예술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와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연수 경험은 앞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상하이 민·관 공연장 운영방식에서 얻은 시사점

이번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상하이의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연장 설립과 운영 방식이었다. 공연장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재생과 신도심 개발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관계자 대담과 현지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공연장 내에는 관객 편의를 위한 유아 돌봄 시설, VIP 발코니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이 표준처럼 마련되어 있었고, 관객이 불편 사항을 직접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그램북 등 관객 중심의 서비스도 매우 발달해 있었다.

특히, 한국의 관주도 공연장과 달리 상하이 공연장은 비교적 재정적 자립을 지향하며, 관객 수요와 티켓 가격을 중심으로 대형 해외 투어 공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공연장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로 느껴졌다.

공연장 역할의 확장에 대한 시사점

상하이 공연장 관계자와의 대담을 통해, 공연장이 단순 공연 기능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공연장은 한 도시의 문화가 성장하는 거점이 되거나, 쇼핑, 숙박, 오피스 등 복합시설로 진화하고 있었다. 상해문화광장공연장은 뮤지컬 인재 육성(뮤지컬 배우 오디션), 창작 지원(창작 연습 공간, 사무공간 제공) 등 뮤지컬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하였고, NEW BUND 31은 문화, 쇼핑, 숙박, 오피스 기능을 융합하여 상하이 신도심에 문화적 역량을 불어넣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사회와 공연산업에서 공연장이 어떠한 확장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무적 네트워크의 소중함

이번 연수에서는 방문지에서 얻은 시사점 외에도 실무자 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소중한 소득이 있었다. 광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며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연수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연수를 준비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참여한 다른 재단 실무자분들도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상해당대미술관(PSA)

성명
이동영

기관명
인천문화재단

202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에서 진행된 국외연수는 각 기관의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도시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방문하는 곳이 많아 생소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본 운영 방식과 분위기가 생각보다 다양해서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았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이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강의 경쟁률이 높고, 웹툰이나 국악 같은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한국 관련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협력 절차에 대한 설명도 비교적 명확해서, 재단에서도 필요하면 실제로 연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를 주관하는 위원회였다. 축제가 40일 동안 이어지고, 공연도 1,200회가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규모 면에서 꽤 놀라웠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축제에서 “예술성”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이었다. 예술제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행사라기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 이후 관람한 상하이 발레단의 <LILY> 공연도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무대 기술을 섞어 만든 작품이었는데, 무대가 섬세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남았다.

이번 일정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은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였다. 공연장, 호텔, 쇼핑몰, 오피스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부 시설이 상당히 현대적이었다. 대극장의 좌석을 통째로 내렸다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공연 외의 행사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공간은 민간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해문화광장은 뮤지컬 중심의 공연장으로, 관객층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관객 대부분이 젊은 여성층이라는 점, 그리고 회원 수가 6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공연장이 스스로 운영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대관을 비롯한 운영 방식도 규칙이 분명해서, 장르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상하이당대미술관을 방문했는데, 발전소를 개조해 만든 건물이라 공간

구조가 독특했다. 층고가 높고 전시실 크기도 커서 대형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데 적합했다. 이번 전시는 한 작가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시였는데, 전시 구성이나 작품 배치가 공간의 성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인상적이었다. 시각예술에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M50 예술지구는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운영하고 갤러리와 상점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공간과 상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예원 옛거리에서는 전통정원, 야간조명, 상점가가 결합된 관광형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정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밤시간의 분위기가 결합되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잘 잡혀 있었다.

전체 일정을 돌아보면, 상하이는 문화예술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각 기관이 나름의 목표와 운영 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본 사례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창작지원·창작공간·국제교류 사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이 많아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성명
김선아

기관명
전라남도문화재단

도시·예술·정책을 잇다 : 상하이에서 찾은 문화예술생태의 깊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미팅
상하이에 설립된 한국문화홍보기관으로 2007년 7월 12일,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도서관, 한식 및 한국어 강의실, 다목적홀, 전시장, 문화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평균 5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문화행사(전시, 공연, 체험), 문화강좌(한국어, 한식, 국악) 프로그램 운영 등 한·중 문화협력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 시설(강좌실, 다목적홀, 전시홀) 대관과 물품(한복, 가야금, 장구등)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주요행사로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연극 <빵야> 상영회,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K- 뮤지컬 축제(공연), 한강라면 체험 행사, '키치 앤 팝: 코리안 팝아트 나우' 전시,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 한국인의 옛 음악 이야기' 전시가 있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전통예술 분야 공연프로그램과 각종 전시, 한국문화 체험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방문일에는 한국 만화웹툰 전시 중인 'K-Comics World'를 관람하였다.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협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는 형식이었으며, 전라남도 지역과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으로 해외전시전을 기획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문화 교육강좌 중 한식(韓食)을 배울 수 있도록 요리공간(대장금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다.

상하이 문화관광국(제24회 상하이 국제 예술제 위원회) 관계자 미팅
중국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급 국제예술축제로 1999년 "예술의 축제, 모두의 향연"을 슬로건으로 출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과 세계 각국 간 문화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상하이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할로, 80여개국 750여 단체와 5만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축제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문화향유'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달랐던 점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두는점과 달리, 중국은 예술성과 작품성이 우수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퀄리티의 1개의 공연작품 제공 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계획·일정에 따른 연간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월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두고 세부적으로 월간 계획을 설계하여 성과 관리를 한다는 점이 놀라웠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 배울점이 많았다.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

1919년에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거점으로 1993년 복원된 곳이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11일 국내외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임시정부 출범 배경부터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가 인물 소개가 되어있으며 1층 회의실, 주방과 2층 김구 집무실 겸 침실, 요인 숙소, 3층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해보았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로웠으며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상하이 당대미술관 방문, 관계자 미팅

중국 및 해외의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Power Station of Ar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 현대미술관이다. 과거 발전소 건물을 미술관(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발전소 굴뚝이 아직도 남아 있어 외관상 공간이 가직 역사와 특별함이 느껴졌다.

방문일 당시 해외 작가가 아닌 중국 작가들의 미술품 전시전이 진행중이었으며 한 작가의 작품들을 패키지(세트)로 여러 작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구성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된 작품들 중 Lin Tianmiao Solo Exhibition 작가의 작품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작가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창작한 작품들을 전시중이었다. 링겔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모습과 치료과정에 있어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제작한 작품과 항암치료 이후 예민해진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생각들과 말로 제작한 작품들이 기억에 깊게 남았다.

당대미술관의 특별했던 점은 작가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전시장 구성과 작품들을 디스플레이를 구상하는 스케치, 과정까지 별도로 전시하고 있었으며, 해당 전시를 개최하기까지의 노력과 과정들까지도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뉴번드 31 아트센터는 2,500석 규모의 극장과 블랙박스 아트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공연예술센터로, 이곳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호텔과 쇼핑몰, 아트센터(공연장)이 모두 이어져 있어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 공간에서 도보로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상하이 국제 예술제와 상하이 패션위크 등 유명 행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 캣츠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위주로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인근에 위치한 상하이대학 재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여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후에 뉴번드 31 아트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 경험을 갖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었다. 실제로 관계자 미팅 시 뉴번드 31 아트센터를 소개해준 분이 장학금을 후원받았으며 현재는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 인상 깊었다.

상하이박물관(동관) 방문

상하이박물관은 중국 대표 고대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약 102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14만점은 국가급 문화재이며, 박물관 건물의 외관은 둥근 돔과 사각형 기단으로 설계되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 사상을 표현한다고 한다.

상하이박물관은 인민광장 옆의 본관과 최근에 개관한 동관 두 곳으로 구분되며 무료입장으로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방문객이 많았다. 청동기, 도자기, 옥기, 서예, 회화, 화폐 등으로 전시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상하이의 문화와 중국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방문, 관계자 미팅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이는 복합 문화시설 및 공연예술 공간으로 2011년에 개관하였으며 2,0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의 공연이 열리며 상하이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국제적인 대형 뮤지컬 공연을 독점하여 공연 운영한다고 하며 뮤지컬이 전체 공연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공연장에 가입한 멤버십 회원이 50만 명이기 때문에 별도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기존 회원만으로도 객석 점유율이 높아 공연 진행 시 관객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과 대관사업, 공연 초청사업 등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업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관 시 국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해도 감면혜택이 없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상해 문화광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오디션을 해마다 주최하고 있으며, 오디션 선발자는 뮤지컬 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 있었으며 공연장 자체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주최한다는 점이 독특했다. 또한, VIP 회원을 위한 프라이빗한 관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회원이 요구한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이 놀라웠다.

'백합화' 발레 공연 관람

루즈쥐안의 1958년 동명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유명 작가 왕안이가 각본을, 안무가 왕거가 연출을 맡았으며,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적 얽힘과 서로 다른 정체성과 성격, 삶을 가진 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발레 공연이다. 상하이 국제 예술제 선정 작품으로 퀄리티가 높았으며 발레 공연이지만 전혀 지루함 없는 웅장한 스케일의 공연을 보여주었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원작을 토대로 공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중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연관하여 사업 설계나 구상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번 중국 상해 국외연수는 중국의 문화예술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특히, 아트센터(공연장) 운영 방식과 공연 사업 등을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던 좋은 기회였으며 문화예술향유 분야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설계(기획)에도 도움이 되었다.



상하이박물관(동관)

성명

신연우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16년에 재단에 입사하여 여러 분야의 업무를 거쳐서 전북의 예술인복지증진업무를 다년간 해오면서 국·내외 예술인지원 및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제게, 이렇게 예술위에서 중국(상하이) 국외연수의 기회를 주셔서 기대와 설렘으로 타재단 여러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행복한 추억의 한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특히, 예술위의 정호은 대리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배려와 세심함으로 수준 높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단 직원 한명 한명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너무 고생하였고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린다.

준비해 주신 모든 일정들이 소중하고 뜻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방문과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공연장 투어, 대표 창작공연 상하이 발레단이 인상적이였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문화원은 단순한 문화전시·공연의 공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현지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전통문화, 현대예술, 생활문화, 학술, 교육의 교류 등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방문객이 다양한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영화제·문화강좌·공연·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문화를 널리 소개하며 한중 간 문화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위원회 및 상해문화관광국 관계자 미팅

상하이 국제예술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예술계의 교류, 공동제작,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가 큰 축제이다. 상하이 국제 예술제는 단순히 관람이 목적이 아닌, 예술 창작의 실험 및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듯이, 창작·교류의 요소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외교 및 글로벌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전북도 이런 대표적인 예술제를 통해 문화정책 외교 및 브랜드화를 시켜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듯하다.

NEW BUND 31 Performing Arts Center 공연장 투어

문화예술 관점에서 단순한 공연장, 문화센터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랜드마크로 제작이 되었으며, 대규모 개발이었어도 예술성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랜드시어터는 큰 규모에 비해 따뜻하고 안정된 분위기였으며, 층별로 독립된 룸이 있어서 식사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인상적이였다.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상하이 도시 안에 또 하나의 도시처럼, 공연장, 호텔, 쇼핑몰을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및 관광시설로서 대표 공간이라 판단된다.



상해당대미술관(PSA)

성명
김수빈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상하이에서 마주한 국제교류의 흐름과 지역문화 재구성의 가능성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 협력 국외연수는 상하이 현지의 문화예술기관, 공연장, 국제예술제 운영 주체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재단 실무자로서 국제 문화예술 환경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이번 연수는 일반적인 개인 여행이나 기관 견학과 달리, 상하이 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 상하이 문화관광국,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NEW BUND 31, 상하이국제무용센터극장 등 각 분야 핵심 기관 담당자와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개인의 접근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적 정보와 국제 흐름을 접하게 하였으며, 문화예술행정 실무자로서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과 시야를 확장하는 사고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관계자 미팅을 통해 국제 공연 유통 구조, 해외 작품 초청 방식, 실질적인 진입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지원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상하이 국제예술제는 80여 개국이 참여하고 도시 전체가 공연 플랫폼처럼 작동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외 프로덕션의 첫 공개가 다수 이루어지는 점에서 국제 교류의 확장성과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전북 지역 예술단체 역시 포럼, 쇼케이스, 부대행사 참가 등을 통한 현실적인 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해문화광장 공연장은 과거 경마장과 거래소를 개조하여 조성된 공연장으로, 도시재생 기반 문화거점 조성 방식과 독립 수익 운영 구조, 고품질 뮤지컬 중심 편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지역 공연장 활성화 모델을 비교·참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NEW BUND 31은 공연장·쇼핑·호텔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 향유 동선과 관광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상하이 발레단 <LILY> 공연 관람을 통해 현지 관객층의 소비 수준과 반응을 체감하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관객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이박물관, 상하이당대미술관, M50 예술지구 방문은 동아시아 문화의 미감, 현대예술

표현의 확장, 예술과 도시 재생의 결합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기반 창작지원 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경험이었다.

또한 연수 과정에서 타 광역문화재단 실무자들과 지원 정책 비교, 사업 운영 경험 공유, 지역 문화 생태의 차이 인식을 교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무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움의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가장 큰 성과는 **"국제 문화예술 환경은 문서와 자료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관계자와 직접 만나고 현장을 체감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이 단순 행정 수행을 넘어, 세계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와 연결하며 국제적 시각을 현장에 번역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국제적 시야 확장, 예술가 교류 및 해외 진출 기회 탐색, 지역 공연장 및 문화공간 운영 사례 반영, 창작지원 방향 다양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 적용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명

박지선, 홍지연

기관명

제주문화예술재단

정책의 우선순위, 기관·현장·시민을 잇는 균형의 방향

202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 협력 국외연수'를 통해 상하이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과 다양한 기관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견문 확대가 아니라 문화시설 운영 전략, 시민 경험 기반 콘텐츠 기획,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 방식 등 정책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첫 방문지인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은 전시·공연·체험·강좌가 한 흐름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관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적 이해와 몰입을 높이는 운영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상하이 국제예술제는 국가지원과 민간 후원을 기반으로 명확한 방향성과 운영 철학을 유지하며 성장한 행사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도시와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연간 단위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가는 체계가 돋보였다. 행정-기관-실무자 각각의 성과가 장기 목표로 연결되어 축제의 안정적 지속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신진예술인의 작품이 축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예술인에게는 홍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유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한다.

NEW BUND 31

NEW BUND 31은 공연예술센터·쇼핑몰·호텔·오피스 기능을 하나의 복합지구로 구성하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지상·지하 이동 동선, 상업시설과 공연장의 결합 방식은 '관람을 넘어 일상 속 문화체험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상하이문화광장 공연장

상하이문화광장 공연장은 시즌제를 기반으로 한 공연 편성과 대규모 회원 기반을 통해 안정적인 관객 수요를 확보하고 있었다. 더불어 오디션,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관객과 공연장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공연장 운영에 있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그 밖에도 모간산루 M50, 상하이당대미술관 등에서 확인한 도시 문화재생 사례도 인상적이었다. 건물 조성과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운영 목적·콘텐츠 구성·시민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예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설계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관의 목표와 현장의 요구, 시민의 경험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성명
정호은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번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문화재단 협력 국외연수는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를 중심으로 상해의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시문화 공간을 직접 탐방하며 다양한 예술 생태계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담당자로서 이번 연수는 단순한 행정적 운영을 넘어, 한국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향후 방향을 다시 그려보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각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참가한 광역문화재단 실무자들의 업무 영역은 지원사업, 향유, 축제, 복지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있어, 단일 분야 중심의 사례 탐방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상해 주요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주한중국문화원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상하이 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와 상해문화관광국 주요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만남이 가능했고,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의 중재로 상해당대미술관(PSA)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운영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단순한 '작품 소개' 수준을 넘어, 지원제도 및 정책, 공연장 운영, 도시문화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하이 국제예술제는 1999년부터 '예술의 축제, 모두의 향연'이라는 슬로건을 이어오며, 도시 차원의 참여와 국제 공동제작 체계 구축을 통해 예술과 시민을 연결하는 공공적 운영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해외 초청작이 전체 공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점, 재원이 정부, 후원, 자체예산으로 균형 있게 마련되는 점 등은 국제예술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뉴번드 31 공연예술센터, 상해문화광장 공연장, M50 예술지구 등 주요 문화공간 탐방에서는 상해가 예술·역사·도시가치를 결합해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공간의 시민 접근성이 높고, 교육, 전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지역문화재단의 공간 운영이나 지역축제 전략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단순한 '작품 초청'에서

벗어나, 예술제 운영 방식, 공연장 시스템, 지원정책, 도시문화 전략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협력의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향후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국제예술제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 모델 구체화**
   상하이 국제예술제의 운영 구조와 작품 도입 방식은 국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획에 실질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2. **지역기반 문화예술지원 정책 고도화**
   상해의 예술교육, 시민 프로그램, 공연, 축제가 연중 연계되는 구조는 지역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할 향유, 교육, 창작지원 사업의 재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3. **한-중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용 확대**
   주한중국문화원과 상해문화관광국,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을 연결축으로 한 교류 기반은 정책 대화, 공동기획, 예술가 교류 등 장기적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신 광역문화재단 실무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지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의 관점을 공유해주신 덕분에 이번 연수는 더욱 다층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배움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와 실제 업무와 어떻게 연계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은 같은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아울러 상하이 국제예술제 조직위원회, 상해문화관광국, 각 방문기관의 세심한 안내와 환대, 그리고 준비 단계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주한중국문화원 심효강 원장님과 무리리 서기관님,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초 휘 팀장님과 최유림 과장님 등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분들의 협력 없이는 이번 연수의 깊이와 완성도가 지금과 같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상하이 국외연수는 도시 예술생태계의 구조를 체감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제도적 방향을 다시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도 이번 연수에서 얻은 성과와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모델과 지원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출처 및 제공

중국의 문화예술

주한중국문화원 무리리 서기관

자료 및 참고 사진

주한중국문화원(www.cccseoul.org)

주상하이한국문화원(www.s.kocenter.cn)

제24회 상하이 국제예술제(www.artsbird.com)

뉴번드 31 공연예술센터(www.shanghai.gov.cn)

상해당대미술관(www.powerstationofart.com)

연수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호은 대리, 컬쳐로드